

폴란드, 주요 산업현황 및 생산동향

<표 1> 동유럽 4개국의 주요 산업현황 지표 비교  
(2006년 기준)

(단위: %)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산업생산/GDP				
농림수산업	11.0	3.4	2.7	9.1
광공업	25.1	31.5	32.6	34.9
서비스업	63.9	65.1	64.7	56.0
산업생산증가율	11.3	10.2	9.7	11.4

자료: EIU, Country Report 및 Country Profile 2008.

1. 산업구조 및 생산동향

- 폴란드는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제조업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이 낙후된 상태였음. 당시 폴란드는 석탄, 동, 유황의 생산기지로 유명하였으나 소비재 산업은 발달하지 못하였음. 또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농업부문의 사유화가 추진되었으나 소농 주도로 농업은 비교열위 산업임.
- 체제전환 이후 폴란드의 산업구조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농업 및 제조업의 GDP 대비 생산비중이 크게 위축된 반면, 서비스업의 성장은 두드러지면서 선진 시장경제의 전형적인 산업구조의 패턴을 형성하고 있음.
- 농업부문은 체제전환 이후 정부의 농산물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타격을 받았고, 석탄·철강 등의 중공업에 집중화된 폴란드 산업은 체제전환 과정에서 급진적인 사회변혁 없이 중공업 분야의 점진적인 구조조정으로 농업부문과 같은 타격을 받지 않았음.

- EU는 폴란드 농업부문의 구조조정과 낙후지역의 인프라 개발투자를 위하여 구조조정기금 및 결속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 종사자의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고용불안 및 소득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음. 실제로, 전국적인 농민시위가 때때로 발생하고 있어 폴란드 정부의 적정한 재정지원이 요망되는 상황임.

### <표 2> 제조업 생산증가율

(전년대비 증감비율: %)

	2002	2003	2004	2005	2006
제조업 평균	1.2	10.2	14.6	3.9	13.4
기계(설비)	1.4	12.8	16.6	20.6	13.8
사무기기(컴퓨터)	44.5	21.8	△36.5	79.9	..
전기기계(기구)	0.9	23.0	9.2	7.4	13.2
통신장비(라디오,TV)	11.5	△8.5	41.4	9.9	45.3
자동차	3.4	30.3	55.7	4.4	22.2

자료: EIU, Country Profile 2007, July 2007.

- 2004년에는 수출 호조와 소비지출의 꾸준한 증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산업 생산증가율이 전년 대비 12.3%에 달한 결과, 경제성장률은 5.3%를 기록함.
  - 노동생산성 상승은 2001년 이후 폴란드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수출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2006년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평균 13.4%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통신장비(라디오,TV) 및 자동차 산업의 폭발적인 생산증가에 따른 것임.
- 폴란드는 자동차부품 공장 설립 등을 통하여 유럽내 자동차 제조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나, EU 가입 이후 수입 중고차 유입증대로 신규 자동차의 자국내 판매실적이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수출 증대로 자동차 매출 부진을 만회하고 있음.
  - 자동차 산업은 1990년대 말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소강국면을 나타내다가 2003년부터 회복되어 승용차 생산량이 2002년 288,000대에서 2006년에는 632,000대로 급증함.
  - 서부유럽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요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Fiat가 수년간 폴란드 남서지역의 Bielsko-Biala를 중심으로 소형차 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으며,

Skoda(독일 Volkswagen의 자회사)와 Renault는 폴란드내 생산기지는 없으나 내수시장에서 양호한 매출실적을 거두고 있음. Opel/GM도 Katowice 지역의 Silesia에 Gliwice 특별경제지대(Special Economic Zone: SEZ)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건설함.

## 2. 전자·통신 산업 현황

- 폴란드의 통신 인프라는 핸드폰을 중심으로 1989년부터 급속히 개선되었지만 낙후지역의 지상통신 네트워크 발전과정은 지연됨. 또한, 1990년대 후반을 전후하여 IT 지출의 60% 이상이 컴퓨터 장비 부문에 투입되었으나 하드웨어 부문에 대한 지출비중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 전자산업 분야 외국기업 진출현황
  - 가전분야: Whirlpool(미), Electrolux(스웨덴), Indesit(이탈리아) 등
  - 오디오 및 비디오 분야: 삼성전자, LG전자, Philips, NEC-Mitsubishi 등
- 유선전화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TPSA는 2006년 기준으로 유선통신부문의 지분을 83% 보유하고 있으나 신규 사업부문에서는 Tele2, Netia 및 Dialog 등과의 경쟁으로 사업영역이 침해받고 있으며 이들 경쟁기업 등으로부터 독점적 사업영역에 대한 개방 압력도 받고 있음.
  - TPSA는 1998년 말 민영화를 시작하여 당시 15% 지분을 국내외 포르폴리오 투자자에 대하여 공모(IPO)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France Telecom이 TPSA 지분의 50% 미만을 소유한 상태임.
- 휴대폰 시장은 3대 업체를 중심으로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2006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은 Centertel 34%, PTC 33%, Polkomtel 32.7%로 나타남. 또한, 2006년 말 제4위 휴대폰 사업자인 P4가 영업을 개시함.
  - Centertel은 Orange(구 Idea)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으며, TPSA 및 France Telecom의 합작법인임. Polska Telefonia Cyfrowa(PTC)는 Era 및 Heyah 브랜드, Polkomtel은 Plus-GSM 브랜드를 각각 운영·관리함.
  - 2006년 기준으로 인구의 88%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휴대폰 소유자도 11%인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인터넷 사용비율은 아직 EU 회원국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urostat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일주일 한번 이상의 인터넷 사용인구 비중이 34%(EU 평균: 47%)로 조사됨.
- 상대적으로 비싼 전화요금과 컴퓨터 장비사용 부족 등으로 인터넷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 확대에 상당한 제약이 있지만 전자통신부문 매출시장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Allegro(경매사이트)가 유명해지면서 많은 생산업자가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B2B(Business-to-Business) 시장도 아직 초보단계이지만 화학 및 철강 제품 등 일부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유럽·기획조사팀장 조 양 현  
 (☎3779-6663) yhjo@koreaexim.go.kr